

SK케미칼 “특허권 수익 관촬네!”

영업외수익 증가 흑자전환 … 항암제 신약1호 실시료 수입 증가

SK케미칼이 1999년 개발해 특허 등록한 항암치료제 <신약1호 백금착제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가 실시료 설정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계속 증가해 영업외수익을 대폭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의 영업외수익은 2002년 785억1500만원에서 2003년 1278억2100만원으로 62% 증가해 2003년 흑자전환에 일조했다.

특히, 영업외수익 중 수입기술료는 2001년 65억원, 2002년 84억3200만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허권자인 SK케미칼이 특허기술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얻는 이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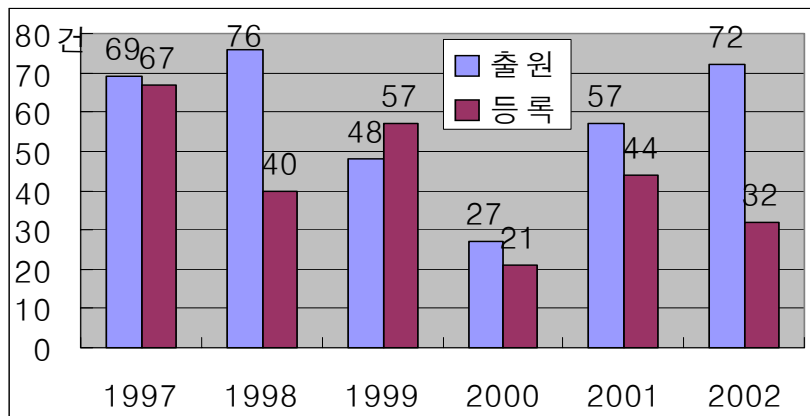
SK케미칼의 특허출원은 1999년 48건, 2001년 57건, 2002년 72건으로 증가했고, 특허등록도 2000년 21건, 2002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SK케미칼이 특허권 등록에 따른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활발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SK케미칼의 특허권은 1999년 생명과학 부문에서 개발한 의약품 <신약1호 백금착제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 등록을 들 수 있다.

특허권자인 SK케미칼은 자회사인 SK제약에 특허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상당한 실시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제약이 특허기술을 사용해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 생산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SK케미칼 수입 기술료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또 SK케미칼의 상표권 <SKY>는 대부분의 상품류에 등록돼 있어 상표권 보호에 따른 무형자산 이익만 최대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03년에는 상표권 <SKY>를 국내외 항공사에 양도하며 5만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 바 있다.

SK케미칼의 국내 특허 출원·등록현황



자료) SK케미칼 R&D 연구소

SK케미칼 R&D 연구소 관계자는 “기술개발에 따른 R&D를 통해 지적재산권 등록과 보호라는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입기술료 수익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3/23>